

통일력사가 전하는 숭고한 사랑과 의리의 세계

주제90(2001)년 3월 24일, 이 날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남조선의 현대그룹 명예회장이었던 정주영선생의 사망과 관련하여 그의 명전에 보내시는 화환을 가지고 북의 조의대표단이 분렬사상 처음으로 남조선으로 나갔던 잊을수 없는 날이다. 그로부터 어언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주영 명예회장의 사망 10돐을 잊지 않으시고 이번엔 또다시 현대일가에 심심한 추모의 정이 담긴

구두친서를 보내주시었으며 그의 뜻을 받들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명의의 화환도 전했다.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현대일가에 베풀어주시는 경에하는 장군님의 대به같은 사랑과 의리의 세계는 정녕 민족의 어버이만이 주시고 간직하실수 있는 가장 뜨겁고 진실하며 영원한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대일가에 베풀어주시는 사랑과 의리의 하많은 이야기들을 여기에 적어 본다.

저들 감사를 표시하는 그에게 장군님께서서는 환히 웃으시며 우리는 우리 민족이 잘되고 잘 살게 하자는 사람들과는 그 누구와도 그 어느때진 손잡고 나갈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마디마디에 언제나 민족을 위하시는 사랑만이 가득차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에 온몸이 पुल린 정주영명예회장은 우리 민족이 누구보다 더 잘 살고 잘되여야 한다는 장군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그래서 자기는 장군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지지한다고 말씀을 리었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정주영 선생은 배방도 있고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성미인것만큼 누가 뭐라고 하든 금강산관광사업을 한번 잘 성사시켜보는것이 좋겠다고,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 현대에 우선권을 주겠으니 현대에서 마음대로 관광을 조직해보는것이 좋겠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이러한 사랑에 반들려 아직은 북남관계가 얼음장같이 차던 1998년 11월 18일 826명의 관광객을 태운 《현대금강》호가 동해의 창파를 헤가으며 분계산을 넘었고 남녘동포들이 그리도 바라던 금강산관광이 시작되게 되었다.

세상에는 백만장자, 억만장자로 불리운 대부호들의 장의식과 관련한 많은 일화들이 있지만 정주영명예회장의 장의식처럼 위인의 사랑과 은정속에 전민족적인 장의로 된 례는 일찌기 없었다고 볼수 있다.

개척자로 내세워주시며

삼천리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채택으로 통일환희의 격정에 잠겨있던 2000년 6월 29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을 방문한 정주영명예회장행렬을 또다시 만나주시었다. 수뇌상봉에서 채택발표된 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긴급한 문제들이 분초를 다투며 장군님을 기다리고있는 속에서 6.15이후 남조선의 첫 손님으로 다름아닌 정주영명예회장을 만나주신 장군님의 심중의 뜻은 무엇이었는가.

원래도 고향을 다녀갈수 있도록은 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남조선에서 맨주먹으로 시작하여 황소기질로 자수성가한 민족 자본가, 남다른 민족적자존심과 완강한 자력자활의 정신, 근면성실하고 검소한 생활습성... 그이께서는 대기업가 정주영을 보시기에 앞서 그의 이런 인간됨을 먼저 보시였으며 라향살이로 보낸 수십년세월에도 변치 않는 애郷심을 더 귀중히 여겨주시었던것이다.

그날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생존해계실 때 정주영선생이 평양과 고향 통천을 방문하도록 하여주시었으며 평양을 방문하면 꼭 만나자본가, 남다른 민족적자존심과 완강한 자력자활의 정신, 근면성실하고 검소한 생활습성... 그이께서는 대기업가 정주영을 보시기에 앞서 그의 이런 인간됨을 먼저 보시였으며 라향살이로 보낸 수십년세월에도 변치 않는 애郷심을 더 귀중히 여겨주시었던것이다.

당시 현대가 하고있는 협력사업들을 방해하고 시비해나서는 세력들이 적지 않았지만 정주영 명예회장은 장군님의 고결한 민족관, 통일애국의 세계에 끌려 굳혔던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고 북남화해와 협력의 길을 계속 걸어나갔다.

눈앞의 경제적타산보다 민족을 위한 길에 인생을 바치려는 로기업가의 그 진정이 그리도 소중하시니 장군님께서 현대가 하고있는 사업이 잘되도록 마음써주시는 수많은 낫과 받들을 사람들은 다는 모르고있다.

변영하는 현대가 되라시며

2000년 9월 30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함흥에서 정주영명예회장과 정몽헌회장행렬을 접견하시니 조의 화환,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고위급 조의대표단과 함께 하늘길을 통해 보내주신 그 화환은 단순한 꽃의 묶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이 다르다고 해도 통일애국의 길에서 한번 손을 맞잡은 사람과는 끝까지 정을 나누시고 의리를 지키시는 경에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인간애, 민족애의 세계가 살아숨쉬는 숭고함과 아름다운 절정이었다.

그날 장군님께서서는 민족앞에 큰 공을 세우셨다고 짐입어린 인사를 드리는 정주영명예회장에게 오히려 명예회장선생은 민족이 화해하는 길을 열어놓은 개척자와 다름없다는 최상최대의 평가를 안겨주시었다. 민족의 화해협력의 길을 열어놓은 개척자!

위대한 장군님의 아량과 동포애에 이끌려 그토록 그리던 고향 땅을 밟게 된 그는 누구도 따를 길 없는 그의 인정과 바다같은 포용력에 삼가 머리숙여 감사를 드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때로부터 몇년후 정주영명예회장이 한마리한마리를 자신이 직접 정성담아 고른 소매를 물고 북을 방문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했을 때에 는 판문점을 통째로 열어주도록 하시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정주영 선생은 어떤 위대한 사랑이 자기를 기다리고있는지 꿈에도 몰랐다. 1998년 10월 30일, 이날은 정주영 선생은 물론 그 일가에 있어서 영원히 잊을수 없는 날이었다. 그날 깊은밤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시는 길로 현대일행이 들어서는 속소를 찾으신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명예회장선생이 내가 있는 곳이면 그 어디든 찾아가겠다고 하였다는데 고향에 있는분이 찾아오게 해서야 되겠는가, 내가 가서 만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왔다고 다정히 말씀하시며 허물없이 그들과 함께 긴 시간을 보내시었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정주영 선생은 배방도 있고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성미인것만큼 누가 뭐라고 하든 금강산관광사업을 한번 잘 성사시켜보는것이 좋겠다고,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 현대에 우선권을 주겠으니 현대에서 마음대로 관광을 조직해보는것이 좋겠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정주영 명예회장령전에 조화를 보내주시었다.》, 《분단후 남북사이의 첫 조문단, 북 최고레우 표시》, 《북 조문단이 던진 과제는 이미 분단을 넘어나섰다.》 등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시신 조문조치들에 대해 대서특필하였었다. 현대일가는 물론 각계 인사들도 북측 조문단성원들에게 김정일국방위원장께 감사의 인사말 꼭 전해달라고 절절히 부탁하였었다.

이것이야말로 한 기업인의 애국충정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최상최대의 믿음이자 경이였으며 그의 한생을 력사로 평가해주시 크나큰 은정이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주영명예회장과 인연을 맺으신것은 북남사이에 불신과 적대의 장벽이 두렵게 얼어붙어있던 6.15 특별 이천시기부러되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정주영 선생은 어떤 위대한 사랑이 자기를 기다리고있는지 꿈에도 몰랐다. 1998년 10월 30일, 이날은 정주영 선생은 물론 그 일가에 있어서 영원히 잊을수 없는 날이었다. 그날 깊은밤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시는 길로 현대일행이 들어서는 속소를 찾으신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명예회장선생이 내가 있는 곳이면 그 어디든 찾아가겠다고 하였다는데 고향에 있는분이 찾아오게 해서야 되겠는가, 내가 가서 만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왔다고 다정히 말씀하시며 허물없이 그들과 함께 긴 시간을 보내시었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정주영 선생은 배방도 있고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성미인것만큼 누가 뭐라고 하든 금강산관광사업을 한번 잘 성사시켜보는것이 좋겠다고,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 현대에 우선권을 주겠으니 현대에서 마음대로 관광을 조직해보는것이 좋겠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정주영 명예회장령전에 조화를 보내주시었다.》, 《분단후 남북사이의 첫 조문단, 북 최고레우 표시》, 《북 조문단이 던진 과제는 이미 분단을 넘어나섰다.》 등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시신 조문조치들에 대해 대서특필하였었다. 현대일가는 물론 각계 인사들도 북측 조문단성원들에게 김정일국방위원장께 감사의 인사말 꼭 전해달라고 절절히 부탁하였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정주영 명예회장령전에 조화를 보내주시었다.》, 《분단후 남북사이의 첫 조문단, 북 최고레우 표시》, 《북 조문단이 던진 과제는 이미 분단을 넘어나섰다.》 등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시신 조문조치들에 대해 대서특필하였었다. 현대일가는 물론 각계 인사들도 북측 조문단성원들에게 김정일국방위원장께 감사의 인사말 꼭 전해달라고 절절히 부탁하였었다.

장장 반세기이상에 걸친 민족분렬의 아픔을 가지고서 혼신들을 다 바친 유망무명의 애국인사들은 많았건만 그 누가 이토록 성스러운 청초를 받아안은적이 있었는가. 이것이야말로 한 기업인의 애국충정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최상최대의 믿음이자 경이였으며 그의 한생을 력사로 평가해주시 크나큰 은정이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주영명예회장과 인연을 맺으신것은 북남사이에 불신과 적대의 장벽이 두렵게 얼어붙어있던 6.15 특별 이천시기부러되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정주영 선생은 어떤 위대한 사랑이 자기를 기다리고있는지 꿈에도 몰랐다. 1998년 10월 30일, 이날은 정주영 선생은 물론 그 일가에 있어서 영원히 잊을수 없는 날이었다. 그날 깊은밤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시는 길로 현대일행이 들어서는 속소를 찾으신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명예회장선생이 내가 있는 곳이면 그 어디든 찾아가겠다고 하였다는데 고향에 있는분이 찾아오게 해서야 되겠는가, 내가 가서 만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왔다고 다정히 말씀하시며 허물없이 그들과 함께 긴 시간을 보내시었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정주영 선생은 배방도 있고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성미인것만큼 누가 뭐라고 하든 금강산관광사업을 한번 잘 성사시켜보는것이 좋겠다고,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 현대에 우선권을 주겠으니 현대에서 마음대로 관광을 조직해보는것이 좋겠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정주영 명예회장령전에 조화를 보내주시었다.》, 《분단후 남북사이의 첫 조문단, 북 최고레우 표시》, 《북 조문단이 던진 과제는 이미 분단을 넘어나섰다.》 등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시신 조문조치들에 대해 대서특필하였었다. 현대일가는 물론 각계 인사들도 북측 조문단성원들에게 김정일국방위원장께 감사의 인사말 꼭 전해달라고 절절히 부탁하였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정주영 명예회장령전에 조화를 보내주시었다.》, 《분단후 남북사이의 첫 조문단, 북 최고레우 표시》, 《북 조문단이 던진 과제는 이미 분단을 넘어나섰다.》 등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시신 조문조치들에 대해 대서특필하였었다. 현대일가는 물론 각계 인사들도 북측 조문단성원들에게 김정일국방위원장께 감사의 인사말 꼭 전해달라고 절절히 부탁하였었다.

해방전 강원도 통천의 시골마을에서 태어나 10대의 어린 나이에 가문의 소를 팔아 마련한 돈을 가지고 고향을 떠났던 정주영 선생에게는 세월이 갈수록 깊어가는 생각이 있었다. 단 한번만이라도 고향을 찾아가 평생 마음속에 무겁게 얹혀있던 속죄의 짐을 털고 선친들의 묘소에 술 한잔이라도 붓고싶었던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정주영 선생은 어떤 위대한 사랑이 자기를 기다리고있는지 꿈에도 몰랐다. 1998년 10월 30일, 이날은 정주영 선생은 물론 그 일가에 있어서 영원히 잊을수 없는 날이었다. 그날 깊은밤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시는 길로 현대일행이 들어서는 속소를 찾으신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명예회장선생이 내가 있는 곳이면 그 어디든 찾아가겠다고 하였다는데 고향에 있는분이 찾아오게 해서야 되겠는가, 내가 가서 만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왔다고 다정히 말씀하시며 허물없이 그들과 함께 긴 시간을 보내시었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정주영 선생은 배방도 있고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성미인것만큼 누가 뭐라고 하든 금강산관광사업을 한번 잘 성사시켜보는것이 좋겠다고,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 현대에 우선권을 주겠으니 현대에서 마음대로 관광을 조직해보는것이 좋겠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정주영 명예회장령전에 조화를 보내주시었다.》, 《분단후 남북사이의 첫 조문단, 북 최고레우 표시》, 《북 조문단이 던진 과제는 이미 분단을 넘어나섰다.》 등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시신 조문조치들에 대해 대서특필하였었다. 현대일가는 물론 각계 인사들도 북측 조문단성원들에게 김정일국방위원장께 감사의 인사말 꼭 전해달라고 절절히 부탁하였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정주영 명예회장령전에 조화를 보내주시었다.》, 《분단후 남북사이의 첫 조문단, 북 최고레우 표시》, 《북 조문단이 던진 과제는 이미 분단을 넘어나섰다.》 등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시신 조문조치들에 대해 대서특필하였었다. 현대일가는 물론 각계 인사들도 북측 조문단성원들에게 김정일국방위원장께 감사의 인사말 꼭 전해달라고 절절히 부탁하였었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해외에서 공화국의 일군들을 만난 기회에 고향방문의사를 조심히 내비쳤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에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소

원래도 고향을 다녀갈수 있도록은 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남조선에서 맨주먹으로 시작하여 황소기질로 자수성가한 민족 자본가, 남다른 민족적자존심과 완강한 자력자활의 정신, 근면성실하고 검소한 생활습성... 그이께서는 대기업가 정주영을 보시기에 앞서 그의 이런 인간됨을 먼저 보시였으며 라향살이로 보낸 수십년세월에도 변치 않는 애郷심을 더 귀중히 여겨주시었던것이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정주영 선생은 배방도 있고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성미인것만큼 누가 뭐라고 하든 금강산관광사업을 한번 잘 성사시켜보는것이 좋겠다고,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 현대에 우선권을 주겠으니 현대에서 마음대로 관광을 조직해보는것이 좋겠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정주영 명예회장령전에 조화를 보내주시었다.》, 《분단후 남북사이의 첫 조문단, 북 최고레우 표시》, 《북 조문단이 던진 과제는 이미 분단을 넘어나섰다.》 등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시신 조문조치들에 대해 대서특필하였었다. 현대일가는 물론 각계 인사들도 북측 조문단성원들에게 김정일국방위원장께 감사의 인사말 꼭 전해달라고 절절히 부탁하였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정주영 명예회장령전에 조화를 보내주시었다.》, 《분단후 남북사이의 첫 조문단, 북 최고레우 표시》, 《북 조문단이 던진 과제는 이미 분단을 넘어나섰다.》 등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시신 조문조치들에 대해 대서특필하였었다. 현대일가는 물론 각계 인사들도 북측 조문단성원들에게 김정일국방위원장께 감사의 인사말 꼭 전해달라고 절절히 부탁하였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전 남조선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선생을 추모하여 구두친서를 보내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전 남조선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선생의 서거 10돐에 즈음하여 그를 추모하는 구두친서를 보내시었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구두친서에서 정주영선생은 민족화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전 남조선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선생의 서거 10돐에 즈음하여 그를 추모하는 구두친서를 보내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구두친서에서 정주영선생은 민족화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전 남조선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선생의 서거 10돐에 즈음하여 그를 추모하는 구두친서를 보내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구두친서에서 정주영선생은 민족화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전 남조선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선생의 서거 10돐에 즈음하여 그를 추모하는 구두친서를 보내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구두친서에서 정주영선생은 민족화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전 남조선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선생의 서거 10돐에 즈음하여 그를 추모하는 구두친서를 보내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구두친서에서 정주영선생은 민족화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전 남조선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선생의 서거 10돐에 즈음하여 그를 추모하는 구두친서를 보내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구두친서에서 정주영선생은 민족화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전 남조선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선생의 서거 10돐에 즈음하여 그를 추모하는 구두친서를 보내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구두친서에서 정주영선생은 민족화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전 남조선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선생의 서거 10돐에 즈음하여 그를 추모하는 구두친서를 보내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구두친서에서 정주영선생은 민족화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전 남조선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선생의 서거 10돐에 즈음하여 그를 추모하는 구두친서를 보내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구두친서에서 정주영선생은 민족화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전 남조선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선생의 서거 10돐에 즈음하여 그를 추모하는 구두친서를 보내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구두친서에서 정주영선생은 민족화해

하심 뜻깊은 구두친서의 글발들이 거레의 가슴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날이 갈수록 더욱 뜨겁게만 이어지는 순결한 사랑과 의리의 세계, 그 끝은 정녕 어디인가.

변영하는 현대가 되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대일가에 돌려주신 사랑과 은정을 전하는 기록들이 여기 있다. ... 1999년 10월 1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함흥에서 정주영명예회장과 정몽헌회장행렬을 접견하시니 조의 화환,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고위급 조의대표단과 함께 하늘길을 통해 보내주신 그 화환은 단순한 꽃의 묶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이 다르다고 해도 통일애국의 길에서 한번 손을 맞잡은 사람과는 끝까지 정을 나누시고 의리를 지키시는 경에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인간애, 민족애의 세계가 살아숨쉬는 숭고함과 아름다운 절정이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정주영 명예회장령전에 조화를 보내주시었다.》, 《분단후 남북사이의 첫 조문단, 북 최고레우 표시》, 《북 조문단이 던진 과제는 이미 분단을 넘어나섰다.》 등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시신 조문조치들에 대해 대서특필하였었다. 현대일가는 물론 각계 인사들도 북측 조문단성원들에게 김정일국방위원장께 감사의 인사말 꼭 전해달라고 절절히 부탁하였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정주영 명예회장령전에 조화를 보내주시었다.》, 《분단후 남북사이의 첫 조문단, 북 최고레우 표시》, 《북 조문단이 던진 과제는 이미 분단을 넘어나섰다.》 등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시신 조문조치들에 대해 대서특필하였었다. 현대일가는 물론 각계 인사들도 북측 조문단성원들에게 김정일국방위원장께 감사의 인사말 꼭 전해달라고 절절히 부탁하였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정주영 명예회장령전에 조화를 보내주시었다.》, 《분단후 남북사이의 첫 조문단, 북 최고레우 표시》, 《북 조문단이 던진 과제는 이미 분단을 넘어나섰다.》 등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시신 조문조치들에 대해 대서특필하였었다. 현대일가는 물론 각계 인사들도 북측 조문단성원들에게 김정일국방위원장께 감사의 인사말 꼭 전해달라고 절절히 부탁하였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정주영 명예회장령전에 조화를 보내주시었다.》, 《분단후 남북사이의 첫 조문단, 북 최고레우 표시》, 《북 조문단이 던진 과제는 이미 분단을 넘어나섰다.》 등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시신 조문조치들에 대해 대서특필하였었다. 현대일가는 물론 각계 인사들도 북측 조문단성원들에게 김정일국방위원장께 감사의 인사말 꼭 전해달라고 절절히 부탁하였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정주영 명예회장령전에 조화를 보내주시었다.》, 《분단후 남북사이의 첫 조문단, 북 최고레우 표시》, 《북 조문단이 던진 과제는 이미 분단을 넘어나섰다.》 등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시신 조문조치들에 대해 대서특필하였었다. 현대일가는 물론 각계 인사들도 북측 조문단성원들에게 김정일국방위원장께 감사의 인사말 꼭 전해달라고 절절히 부탁하였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정주영 명예회장령전에 조화를 보내주시었다.》, 《분단후 남북사이의 첫 조문단, 북 최고레우 표시》, 《북 조문단이 던진 과제는 이미 분단을 넘어나섰다.》 등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시신 조문조치들에 대해 대서특필하였었다. 현대일가는 물론 각계 인사들도 북측 조문단성원들에게 김정일국방위원장께 감사의 인사말 꼭 전해달라고 절절히 부탁하였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정주영 명예회장령전에 조화를 보내주시었다.》, 《분단후 남북사이의 첫 조문단, 북 최고레우 표시》, 《북 조문단이 던진 과제는 이미 분단을 넘어나섰다.》 등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시신 조문조치들에 대해 대서특필하였었다. 현대일가는 물론 각계 인사들도 북측 조문단성원들에게 김정일국방위원장께 감사의 인사말 꼭 전해달라고 절절히 부탁하였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전 남조선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선생을 추모하여 구두친서를 보내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전 남조선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선생의 서거 10돐에 즈음하여 그를 추모하는 구두친서를 보내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구두친서에서 정주영선생은 민족화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재일동포들에게 위문금을 보내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일본에서 일어난 대문금은 단합된 힘으로 지진피해후과를 하루빨리 가시기 위해 규모는 적극 노력하고있는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에게 고무적힘을 50만US\$를 보내시었다. 경에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동포애가 어려있는 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서 일본 적십자사에 위문금을 보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서는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대지진과 해일로 많은 인명피해와 물질적손실이 초래된것을 접시자사에 10만US\$의 위문금을 보

제 13차 김일성화축전이 진행 된다

태양절을 맞으며 제13차 김일성화축전이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게 된다. 주체100(2011)년 4월 중순부터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축전에는 무력기관들과 성, 중앙기관들, 인민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그리고 총련을 비롯한 해외 동포단체들과 외국의 벗들이 참가하게 된다. 축전기간 각 지방들에서는 김일성화전시회와 김일성화 김일화각 실 참관사업이 있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

평양에서 제 27차 4월의 봄 천선에술축전이 진행 된다

인류공동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제 27차 4월의 봄 천선에술축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된다. 4월의 봄 천선에술축전은 진보적인류가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끝없이 흠모하는 경에하는 수령 김일성주석에 대한 열렬한 칭송이 뜨겁게 분출되는 국제적인 대예술회합으로 년대와 세기를 이어 나가고있다. 이번 축전은 다음해에 김일성민족의 최상최대의 명절로, 인류사적대경사로 맞이하게 되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앞두고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내외의 커다란 관심을 집중시키고있다.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진행되는 축전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국제국내포용수상자들, 명배우들로 구성된 수많은 예술단, 무용단, 교예단 그리고 해외동포예술단들

한량미

체제대결을 추구하는 반통일전략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과 폭넓은 아량이 의해 모처럼 마련된 북남고위급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이 남조선당국의 비렬한 대결정책과 고의적인 대화과란홍계로 결렬된 후 한달이 더 지나갔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회담을 결렬시킨 저들의 죄과를 반성하고 사죄할 대신 마치고 그 책임이 공화국에 있는것처럼 여론을 오도하면서 반공화국대결분위기고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은 북남대화가 결렬된것은 북에 《진정성이 결여》 되었기 때문이라느니, 《대화할 대신 마치고》느니, 《북의 태도변화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느니 하면서 《현단계에서 먼저 움직임 계획은 없다.》, 《대화를 성급하게 시작하지 않을것》이라고 떠들고 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당국이 《효용 가치가 없음》이 증명된 《기다리는 전략》에 더욱 광선적으로 매달리고있음을 드러내놓은것이라고 한결같이 평하고 있다.

일리가 있는 소리이다. 이미 알려졌것처럼 남조선당국이 내리고있는 북남관계에서

의 《기다리는 전략》은 한마디로 말하여 공화국을 대화와 협력 이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적압력과 제재를 통하여 고립시키면서 저절로 무너지기를 기다린다는 《붕괴》 전략이다.

바로 이 전략에 기초하여 남조선당국은 집권 첫날부터 대화차단, 협력부정, 교류과파, 전쟁도발의 대결적인 반공화국정책으로 북남관계를 완전과국으로 몰아갔다.

남조선당국이 집요하게 추구하고있는 《기다리는 전략》은 민족의 통일대강들을 전면 부정하고 분열과 대결을 지속시키려는 목적에 고안된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모략이다.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가장 관바른 지름길은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성실히 리행해나가는데 있다.

은 민족이 한결같이 지지찬동하고 현실을 통해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북남공동선언들은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기치이고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서 시간이 흘렀다고 하여 퇴

색되거나 《정권》이 바뀐다고 하여 수정될수 없는 민족의 통일대강이다.

그러나 현 남조선의 보수집권 세력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서기 전부터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원론적》이며 《추상적》인것으로, 《대남공작문서》, 《용공리직문서》로 헐뜯고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기며 도도히 굽이쳐온 6.15자주통일시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모독해나갔다.

북남관계는 같은 민족사이의 특수한 관계가 아니라 《국가들 사이의 관계》라고 하면서 통일문제의 본질을 외곡하였으며 《비핵, 개방, 3 000》, 《3단계 통일방안》과 같은 《승공통일》을 전제로 한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오늘날까지 고집하고있는 것도 다름아닌 남조선의 현 집권당국이다.

남조선당국의 반통일적립장과 자세는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모조리 부정, 파괴하고 동족을 겨냥한 대결과 전쟁책동에 몰

두하고있는데서도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남조선의 보수집권 세력은 2009년 8월에 이어 올해 초 북남사이의 첨예한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공화국의 정당하고도 통이 큰 대화제안들을 그 무슨 《진정성》과 《전술적 변화》를 읊으며 고의적으로 거부하였다.

남조선의 현 집권당국이 발족하여 지난 3년간 금강산관광을 비롯하여 북남간의 대화와 협력사업이 모조리 중지파란되고 오히려 대결과 긴장만 고조되었다는 사실 하나만 놓고서도 남조선 보수집권 세력의 반통일적책체를 잘 알수 있는것이다.

이 모든것이 이른바 남조선당국이 내리고있는 《기다리는 전략》에서 출발한것이라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기에 남조선의 야당들과 광범한 사회여론은 《리명박(정부의) 《기다리는 전략》의 실상은 《대북전제타격론》, 《유엔 북인권결의안찬성》, 《대북 베라살포방식》, 《비핵, 개방, 3 000 립안자의 통일부 장관인명》 등으로 드러난 대북압살전략이다.》, 《〈선비행화〉, 〈북걸들이기〉, 〈기다리는 전략〉을 고수하는 동안 남북관계는 대결로 역류하고있다.》, 《기다리는 전략에 매달려 북붕괴를 고대하는것이야말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행동》이라고 규탄배격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의 《기다리는 전략》은 미국의 반공화국압살과 적대시정세가 편승하여 북남관계에 대한 《흡수통일》, 《승공통일》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전략이데 더 큰 위험성이 있다.

《기다리는 전략》은 현 미행정부의 《전략적인내》 정책과 궤를 같이하고있다. 미국의 오바마행정부는 출현하자마자 대화와 협상이 아니라 강경과 압박을 부르짖으며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린다는 《전략적인내》 정책을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정하였다.

지난해 5월 미국무장관이 남조선 집권자에게 《시간은 우

려면》이라는 인식하에 중장기적으로 조선반도정세를 다루어야 한다면서 《전략적인내》가 《장기적인 대북압박을 지속함으로써 북을 《정상개도》로 돌려놓는것》이라고 밝히고 미국의 많은 고위관료들 역시 《현 미행정부는 북과의 외교활동을 하면서 단숨에 대화를 하는것만으로는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하면서 《전략적인내》는 《미국이 남조선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전략》을 마련하고 《주변국들과 강력한 의미의 《공통체》를 구성하는것》이라고 로골적으로 떠들어댄것은 그에 대한 뚜렷한 실증이다.

미국이 추구하고있는 《전략적인내》에 대해 남조선의 언론들도 미행정부가 《북에 대한 두 트랙전략(체적과 당근전략)에 몰두하면서 《금번사태》나 《붕괴가능성》을 기다리는것》이라고 폭로하였다.

지금 미국은 《전략적인내》

《진정성》과 《특수리》 훈련

지금 남조선전역에서는 《키 리졸브》와 함께 시작된 《특수리》 합동 군사연습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발광적으로 감행되고있다.

이 광란적인 합동군사연습운동은 결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남조선보수당국의 정체를 여실히 보여주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지금껏 그 무슨 《진정성》에 대해 말할마다 광고해왔다. 과국에 처한 북남관계의 개선과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성의있는 대화제와 관련해서도 《진정성》이니, 《태도변화》니 하고 떠들어댔다. 그들은 《진정성》라령을 늘어놓으며 모처럼 마련되었던 북남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을 결렬시키고 그 책임도 북에 전가시키려고 책동하였다.

진정성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북이 남측에 대고 해야 할 말이다. 지금까지 북은 북남대화와 관계 개선을 시종일관 요구하였고 그 실현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그것은 북과 남에 백해무익한 대결상태를 하루빨리 끝장내고 민족의 화합과 협력으로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지극히 애국애족적이고 정당한 노력이다. 북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을 줄곧 요구하는것도 바로 이 선언들에 북남쌍방의 리익, 민족의 리익이 다같이 반영되어있고 화해와 협력을 떠나 나라의 통일도, 민족의 평화번영도 이룰수 없기 때문이다.

대결과 긴장격화가 민족성원 그 누구에게도 리로울것이 없으며 평화와 통일이 살길이기에는 북은 올해 정초부터 분리의 60여년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제기하고 그 실천적조치를 련이 취하여왔다. 북과 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여 군사적 충돌이 다시 일어나는것을 막고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노력이 겨레를 위한 진정한 대화자세이고 노력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마주앉아야 상대방의 뜻을 알수 있고 진정성도 파악할수 있는 법이다. 그런데 남측은 그 무슨 《진정성》을 북남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예비회담마저 끝내 결렬시켰으니 여기에 어디 문제를 풀고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려는 열골만 한 성의, 진정한 마음도 있는가 하는것이다.

동족이 내미는 화해와 대화의 손길을 뿌리치고 남조선당국이 세계의 면전에서 펼쳐보이고있는것은 화약 내나는 대규모전쟁연습이다.

하다면 북이 제의한 대화는 《진정성》이 없고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은 《진정성》이 있다는것인가.

막을 내린 《키 리졸브》연습과 지금 본격적인 단계에서 광란적으로 벌여지고있는 《특수리》연습은 그 규모와 동원된 군사장비, 연습 기일과 훈련의 목적 등에 있어서 위험천만한 북침선제공격연습외에 다른것이 아니다. 조선반도정세가 그 어느때보다 첨예한 때에 남조선보수

당국이 외세와 야합하여 벌리는 전쟁불장난소동이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이 땅에 열핵전쟁의 위협을 몰아오는것이라는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원래 동족이 대화하자고 하는 때에 전쟁연습불장난을 벌리는것자체가 로골적인 대화거부선언이고 동족을 대화상대가 아닌 적으로 여기는 참을수 없는 도발행위이다. 《특수리》연습의 총포성은 대화의 분위기를 짓누르는 대결광란이고 평화를 깨뜨리는 전쟁선호란이며 지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신생전의 북소리이다.

《진정성》을 떠드는 남조선당국의 진속은 보는것처럼 동족에 대한 적의와 전쟁의기로 가득차있다.

이 불순하고 위험천만한 기도를 버리지 않는 한 북남관계는 언제가 도 개신될수 없고 겨레가 전쟁의 화를 면할수 없다.

지금 이 시각 태도변화는 바로 남측이 해야 한다.

어떻게 하나 실현할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모든 사실은 보수집권 세력이 《남북교류협력진흥원》 설립이니, 이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개악이니 하고 떠들어대고있는것이 저들의 대결정책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장치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어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아무리 갖은 모략책동에 매달린다 해도 대결위기를 고조시키고 북남관계를 파란으로 몰아간 저들의 교활한 음모적책체는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남조선에서 통일부라는 것이 생겨 지금까지 수십 번이나 장관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현인택은 갖아볼수 없다. 그가 동족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적대감으로 일관된 《비핵, 개방, 3 000》을 고안해내고 그것을 시종일관 《원칙》인듯 부르짖어 북남관계를 과국으로 몰아온 장본인이라는것은 알만 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현인택이 통일부 장관이 되자마자 이전 《정권》시기의 인물들을 모조리 내쫓고 반통일분자들로 끌어들이는것도 널리 알려져 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대결과 분열만을 추구하는 현인택은 온 겨레가 지지찬동하고 실천으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해서도 《법적구속력

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다. 대화와 통일번영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 대방을 위협하는 전쟁연습은 북남관계를 파괴하고 전쟁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키 리졸브》합동군사연습과 지금도 발광적으로 벌여지고있는 《특수리》합동군사연습은 그자체가 대화상대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도발이며 연습의 규모와 내용, 기일, 성격에 있어서 도저히 간과할수 없는 북침선제공격연습이다. 이 전쟁연습이 그 누구의 《금번사태》를 가정하고 벌여지고있는 사실 하나만 보아도 그 침략성, 호전성을 너무나 잘 알수 있다.

대화상대방을 해치려는 이러한 전쟁연습운동이 가득이나 불신과 대결이 극도에 이른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대화의 싹도 짓밟는 용서 못할 행위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대화로 흐르던 조선반도의 기류가 전쟁기류로 돌변한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지난 시기에도 남조선에서의 《팀 스피리트》, 《울치 포크스 랜즈》와 같은 대규모합동전쟁연습운동으로 하여 진행되던 북남대화가 깨지고 전쟁집정의 첨예한 정세가 조성된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대화와 전쟁연습은 추후도 랑립될수 없다.

은 겨레는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야합하여 벌리는 합동군사연습이 로골적인 대화거부, 반평화, 반통일책동이라고 일치하게 규탄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기만적인 《대화》라령으로 겨레를 우롱할것이 아니라 실지 행동으로 대화를 위한 진정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러자면 대화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하며 더구나 자극하고 위협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자칫 전쟁의 불길로 타버릴수도 있는 대규모합동전쟁연습을 앞으로도 계속하는가 아니면 그만두는가 하는것은 남조선당국이 대화와 긴장완화를 바라는가 전쟁을 바라는가 하는것을 가늠하는 주요 의도의 하나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윤현주

대화와 상반되는 북침전쟁연습

최근 남조선의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을 또 다시 개악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것은 북남교류협력단체들의 손발을 더욱 얽어매고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여 북남관계를 완전히 차단하려는 반통일적책동의 흉악한 속심의 발로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현 남조선당국은 집권하자마자 《비핵, 개방, 3 000》을 《대북정책》으로 정식 선포하고 북핵이 있는 한 대화, 협력은 없을것이라하고 떠벌이며 북남관계에 전면적인 차단봉을 내리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진행되어오던 북남대화와 협력사업들이 모두 파탄의 운명에 처하였다.

특히 보수집권세력은 《남북교류협력법》을 뜯어고쳐 북남협력사업에 대해 간섭과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협력기금을 줄이고 벌금을 부과하는 등 비렬한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였다.

그들은 남조선인민들의 눈과 입, 귀를 막고 통일이라 하는 말만 해도 무자비하게 감옥으로 끌어갔으며 그것도 모자라 신형 《정권》시기에 북남협력법개악을 추진한 사 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폭압선동을 일으켰다.

그러하여 범민련 남측본

이것이 각계의 강력한 항의의 불리이켜 반 《정부》투쟁으로 이어지자 보수집권 세력은 저들의 반통일죄악을 합법화하고 남은 협력법개악을 문마져 차단할 목적밖에 또 다시 《남북교류협력법》개악에 나선것이다.

최근 남조선당국이 정선대

전제조건으로 북과의 협력 교류에 나선 업체들을 통 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진흥원》의 설립문제를 들고나온데서 찾아볼수 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 진흥원》 설립리유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북의 경제적

대결야망에 들뜬자들의 교활한 음모책동

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를 비롯한 많은 합법적단체들이 《리직단체》, 《불법폭력단체》로 규정되어 탄압당하였으며 북남협력법개악에 현신해는 단체들과 성원들이 《간첩》, 《용공분자》로 몰려 줄줄이 체포두속되었다.

뿐만아니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서명한 진직 《대통령》들과 선인 《정권》시기의 《국무총리》도 그 희생물이 되었다.

문제대체협의회가 북측녀성 단체와의 공동선언문협의를 위해 모사통신연계를 가지려는것마저 차단하는 등 전례없는 파쑈광풍을 일으킨것도 그 연장선에서 감행된것이다.

남조선당국이 《남북교류 협력법》개악에 나선데는 또한 북남관계개선의 미명하에 민심을 기만하고 저들의 대결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장치를 완비하려는 술책도 깔려있다.

그것은 이번엔 법개악의

조가 경쟁구조에 있는 남측 교류단체들과 맞지 않기에 《문》이라고 책쳐냈다. 이를 통해 통일부는 북남 협력법개악이 잘 안되고 나아가 북남관계가 파란된것이 마치 그 어떤 체제때문인듯이 묘사함으로써 그 책임을 회피하고 선인 《정권》시기 이룩된 모든 성과와 경험들을 없애버리려 하고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보였다.

《실용정부》가 북남관계 파란의 책임을 공화국에 넘겨주고 저들의 대결야망을



당국의 무모한 동족대결정책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북남관계를 과국으로 몰아넣은 용납 못 할 죄악

이 없는 정치적선언이라고 내놓고 깎아내리고 부정하였다.

지금 남조선에서 미국의 반공화국핵소동에 추종하여 핵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집요하게 떠들어대고있는것도 현인택이고 북남관계의 길목을 가로타고있는 대화와 협력을 악랄하게 가로막고 있는것도, 인도적문제를 불순한 목적에 악용하면서 붙어온 장본인이라는것은 알만 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현인택이 통일부 장관이 되자마자 이전 《정권》시기의 인물들을 모조리 내쫓고 반통일분자들로 끌어들이는것도 널리 알려져 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대결과 분열만을 추구하는 현인택은 온 겨레가 지지찬동하고 실천으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해서도 《법적구속력

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다. 대화와 통일번영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 대방을 위협하는 전쟁연습은 북남관계를 파괴하고 전쟁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키 리졸브》합동군사연습과 지금도 발광적으로 벌여지고있는 《특수리》합동군사연습은 그자체가 대화상대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도발이며 연습의 규모와 내용, 기일, 성격에 있어서 도저히 간과할수 없는 북침선제공격연습이다. 이 전쟁연습이 그 누구의 《금번사태》를 가정하고 벌여지고있는 사실 하나만 보아도 그 침략성, 호전성을 너무나 잘 알수 있다.

대화상대방을 해치려는 이러한 전쟁연습운동이 가득이나 불신과 대결이 극도에 이른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대화의 싹도 짓밟는 용서 못할 행위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대화로 흐르던 조선반도의 기류가 전쟁기류로 돌변한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지난 시기에도 남조선에서의 《팀 스피리트》, 《울치 포크스 랜즈》와 같은 대규모합동전쟁연습운동으로 하여 진행되던 북남대화가 깨지고 전쟁집정의 첨예한 정세가 조성된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대화와 전쟁연습은 추후도 랑립될수 없다. 은 겨레는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야합하여 벌리는 합동군사연습이 로골적인 대화거부, 반평화, 반통일책동이라고 일치하게 규탄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기만적인 《대화》라령으로 겨레를 우롱할것이 아니라 실지 행동으로 대화를 위한 진정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러자면 대화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하며 더구나 자극하고 위협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자칫 전쟁의 불길로 타버릴수도 있는 대규모합동전쟁연습을 앞으로도 계속하는가 아니면 그만두는가 하는것은 남조선당국이 대화와 긴장완화를 바라는가 전쟁을 바라는가 하는것을 가늠하는 주요 의도의 하나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윤현주

지금도 현인택은 모략적인 베라살포와 《북인권》소동이 더욱 열을 올리고 그 누구의 《금번사태》니, 《변화수도》니 하는 독기서린 말들을 계속 내뱉으면서 동족대결을 고취하고있다.

그가 북남관계가 파산된 지금에 와서도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떠드는것은 겨레를 우롱하는것이고 체제대결을 끝까지 벌리려는 기도의 산물외에 다른것이 아니다.

이런자가 통일부 장관의 감투를 쓰고 앉아있으니 북남관계가 파산의 나락에 굴러떨어지고 관계개선은커녕 총포탄이 오가는 협박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남조선에서 통일부를 반통일부라 립인하며 현인택의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는것이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서철수

인권 파괴자들의 가소로운 망동

지금 남조선의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은 그 누구의 《인권》을 운운하며 갈수록 더욱 못되게 나오고있다. 이른바 《북인권법》 조작농음이 그것을 잘 보여주었다.

《한나라당》 패거리들은 지난 2월과 3월의 임시 《국회》에서 《북인권법》이 통과되지 못한것을 두고 《아쉽다》느니 뭐니 하면서 4월 임시 《국회》에서는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떠들고있다.

한편 통일부와 법무부는 《북인권법》에 따른 《북인권기록보존소》라는것을 서로 자기들이 차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싸다귀를 본 개들처럼 다투고있다.

주제넘게 아직도 《인권》을 운운하며 《북인권법》까지 만들려고 하는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에게 격언을 하나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남의 얼굴을 가리키기 전에 제 손부터 깨끗이 씻으라는 것이다.

공화국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말한다면 아무리 손가락질할 해도 그 빛

을 훼손시킬수 없다.

인권이 정치의 주인으로 되고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적행태들이 실시되고있는 공화국에서는 애당초 《인권문제》라는것이 있을수 없다. 국가로부터 무상치료와 무료교육의 혜택을 받고 평등한 정치적권리와 보람찬 노동의 권리를 행사하고있는 공화국인민들은 자기 제도와 정권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따르고있다.

세계가 지금 민족간, 종족간의 분쟁, 생활난 등으로 극도로 혼란과 파국을 겪고있지만 공화국에서는 사회가 고도로 안정되어있으며 인민들 모두가 령도자를 따라 부강조국의 미래를 앞당겨주기 위하여 전심전력하고있다.

공화국인민들이 누리는 이러한 참다운 인간존엄, 인간생활을 저들의 뼈물어진 인간기준을 자막대기로 하여 들여다보아야 바로 볼수 없다.

그 누구의 《인권》을 운운하는자들은 남의 눈에 비친 제 얼굴부터 바로 보아야 한다.

남조선은 최악의 인권불모지이다. 천만원을 넘는 등록금으로 청소년

들의 배움의 권리를 짓밟고 서민들의 등허리를 휘게 하는 770조원의 가계부채로 생존권을 위협하고 대기업만을 살찌우는 부자감세, 비정규직확산으로 남조선을 더욱 사람 못살 세상으로 만들어가고있는것이 현상이다.

그들이 그 누구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가지고 열을 올리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공화국의 영상을 흐리게 하여 저들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합리화하고 범죄적인 《휴스통일》의 목적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것이다. 아무리 《인권》이니 뭐니 하며 대결소동을 꾸워도 회개를 겁은것으로 만들수 없으며 저들의 불순한 정치목적은 달성할수 없다.

반공화국 《인권》소동은 극악한 동족대결소동이며 북남관계를 더욱 해치는 그 비렬한 행위를 온 겨레가 규탄하고있다.

력사는 그러한자들의 반통일외교와 인권유린만행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심판하고야말것이다.

김정혁

는 아닌보살하고 강건너 불보듯 하면서 오히려 동족이 누리는 참다운 인권에 대해 시비질해나서는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야말로 속동이 고약하다 해야 할것이다.

그들은 그 누구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가지고 열을 올리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공화국의 영상을 흐리게 하여 저들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합리화하고 범죄적인 《휴스통일》의 목적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것이다. 아무리 《인권》이니 뭐니 하며 대결소동을 꾸워도 회개를 겁은것으로 만들수 없으며 저들의 불순한 정치목적은 달성할수 없다.

반공화국 《인권》소동은 극악한 동족대결소동이며 북남관계를 더욱 해치는 그 비렬한 행위를 온 겨레가 규탄하고있다.

력사는 그러한자들의 반통일외교와 인권유린만행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심판하고야말것이다.

김정혁

조선의 무성 대변인 리비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공격을 단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미국이 리비아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개시한것과 관련하여 22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19일 미국은 일부 서방나라들과 야합하여 리비아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개시하였다.

리비아의 내정에 로폭적으로 개입하여 내란을 부추기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회의 권능을 도용하여 기만적인 결의를 조작해낸 다음 무차별적인 무력간섭에 나선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령도완정에 대한 란폭한 침해도, 그 나라 인민의 존엄과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최대의 반인륜범죄로 준렬히 단죄한다.

이러한 전쟁행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으며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세계는 현재기에 들어와 미국이 일으킨 두차례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평화주의자들의 참혹한 죽음을 헤아릴수 없는 재난이 초래되고있는것을 매일같이 목격하고있다.

그것도 성취치 않아 미국은 《민간인보호》의 허울좋은 명목밑에 저들의 눈에 거슬리는 정권을 무력으로 교체하고 그 나라의 자원을 타도고있기 위해 새로운 전쟁의 참화를 몰아온것이다.

주권국가의 주권을 무시하고 유엔의 간섭을 도용하여 내전간섭과 무력침공을 거리낌없이 자행하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은 오늘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교란시키는 화근으로 되고있다.

리비아사태는 국제사회에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다.

지난 시기 미국이 떠들기 좋아하던 《리비아핵포기방식》이란 바로 《안전담보》와 《관계개선》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상대를 얼러넘겨 무장해제를 성사시킨 다음 군사적으로 덮치는 침략방식이라는것이 세계대전에서 날날이 드러났다.

지구상에 강권과 전횡이 존재하는 한 자기 힘이 있어야 평화를 수호할수 있다는 력사의 진리가 다시금 확증되었다.

우리가 선택한 선군의 길은 천만번 정당하며 그 길에서 마련된 자위적국력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없이 소중한 역적력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지난 3월초부터 남조선강점 미군은 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 군사분계선 20m까지 들어와 공화국의 인민, 차량에 대한 감시활동을 무려 50여차례 걸쳐 진행하는 도발소동을 벌여왔다. 그런가하면 최대의 안정이 보장되어야 할 장소에 여자들까지 데리고 들어와 사진을 찍거나 술추렴을 하고는 상대측소를 향해 술병까지 던지며 인민군인들을 자극하는 무례한것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그러지 않아도 폭발직전에 있는 조선반도의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는 무모한 망동이고 도발이 아닐수 없다.

이미 알려진것처럼 북과 남은 동, 서해지구에 북남관리구역을 설정하고 필요에 따라 관리구역 100m이내로 진입할 경우 상대측에 미리 사전통보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북남관리구역에서 사전통보없이 그가 누구이든

100m안에 접근할수 없게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북남관리구역에서 아무런 절차도 없이 도발행위를 감행한것은 오만과 독단으로 체질화된 강점군의 횡포무례한 도발행위로써 절대로 스치고 넘어갈수 없는 것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키리졸브》연습에 이어 《독수리》 합동 군사연습이 한창 진행되고있다. 이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전쟁정경으로 각일각 치닫고있다. 최신전쟁장비들과 수십만명의 방대한 병력이 동원된 이번 전쟁연습이 인민의 시각에 실전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수 없다.

이번 속에서 그것도 쌍방의 방대한 무력이 첨예하게

대치하고있는 군사분계선일대의 북남관리구역에서 미군이 무례하고 자극적인 도발행위를 계속 일삼고있는것이 한갓 우연한것이아니고 볼수 없다. 그것은 상대방의 신경을 극도로 자극하여 무력충돌의 불씨를 일으키고 그것을 기화로 전면전의 도

론하고 북남관리구역에서의 출입질서 등 모든 행동이 규범없이 쌍방의 합의절차에 따라 리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쌍방간에 합의한 북남관리구역에서의 행동규범과 절차를 헤치려고 미군의 무모

한 도발행위를 저지시키는 커녕 앞면서도 모로쇠를 하며 지어는 비호조장시키고있다.

이것은 북남사이의 군사적합의에 대한 로폭적인 파괴행위이다.

북남관리구역에서 최근에 일어나는 도발사건들은 민족공조를 부정하고 외세의

움자락에 매달려 《휴스통일》의 어리석은 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남조선당국의 친미사태와 동족대결의 근골을 잘 보여주었고 있다.

조성된 사태의 심각성으로부터 출발하여 공화국의 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는 얼마전 북남관리구역에서 감행되고있는 미군의 도발행위는 물론 그것을 묵인조장시키고 있는 남조선정부의 처사에 대하여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게 될것임을 남측에 엄숙히 통지하였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리구역에서의 미군의 도발행위를 어떤 엄청난 후과를 초래하겠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해당하는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호

얼마전 남조선의 서울 강북구에 있는 어느 한 가게에서 한 로인에 대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야말소동의 범죄가 지배하는 남조선에서는 살인, 강탈 등 범죄행위가 매일 매시각 벌어져 사람들은 그것을 무심히 대하고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류달리 사람들의 이목을 모았다. 그것은 죽은 로인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베라살포행위에 누구보다 앞장서온자의 모친이 기때문이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국우보수단체들과 동족대결에 환장한자들은 저지르나 나서 그 누구에 의한 《테로》라느니, 《친북단체의 소행》이라느니 뭐니 하며 입을 한데 모았다. 그런데 나라난 조사자료들을 통해 살인사건이 단순강도사건이었던것이 밝혀져 보수세력들은 닭쫓던 개신세가 되어 메사해졌다 고 한다. 동족대결에 환장한자들이 벌린 하나의 회비극이 아닐수 없다.

민간단체의 말을 쓴 우익보수세력들이 현 《정부》의 등장과 함께 반공화국베라선전을 본격화하였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보수당국의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에 적극 추종하면서 반공화국베라선전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는 국우보수세력들의 범죄적책들은 온 겨레의 치초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지금 국우보수단체성원들의 사무실과 집, 휴대전화로써는 반공화국베라살포행위를 규탄하는 항의가 비발치듯 들어오고있다 고 한다.

최지은자는 자기의 그림자를 보고도 놀란다는 말이 있다. 저들이 지은 죄로 하여 국도의 죄의식에 포로된 국우보수분자들은 어떤 화를 입을지 몰라 전전공공하고있다. 그러니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그것을 덮어 놓고 그 누구에 의한것으로 묘사하려고 애고래 피대만 두는것이다.

서명수

한겨울사건, 《청목회로비사건》 등 큼직한 사건들이 해마다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는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올해초에는 전, 현직 고위공직자들과 《국회》 의원들까지 포함하여 수십명이 연루된 《함바집로비의혹》 사건이 또 드러나 인민들의 원성을 사고있다. 《국회》청문회에서 부정부패범죄가 드러나 자리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자진 사퇴한 인물이 지금까지 8명이 나 된다 고 하니 더 말할나위도 없다.

남조선에서 부정부패현상은 사람이나 몇명 바꾸고 《청렴교육》이나 준다 고 없어질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부패한 《정권》이 초래한 구조적이며 만성적인 병폐이다.

한경수

또 충돌을 일으키려는가

한 도발행위를 저지시키는 커녕 앞면서도 모로쇠를 하며 지어는 비호조장시키고있다.

이것은 북남사이의 군사적합의에 대한 로폭적인 파괴행위이다.

북남관리구역에서 최근에 일어나는 도발사건들은 민족공조를 부정하고 외세의

화선에 불을 달라는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도발행위라고 밖에 달리는 평할수 없는것이다.

강점군의 이러한 도발소동을 묵인조장하고있는 남조선당국에게도 문제의 책임이 있다.

원래 당사자들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각자의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는것이 마땅한 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긴장격화를 바라지 않는다면 그 누구를 막

고려하고있는 해외주재 외교관들의 추문사건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이웃나라 총영사관의 전직 총영사를 비롯한 3명의 외교관들이 한 녀성을 둘러싸고 불륜의 관계를 맺은 추문사건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 가있는 외교관들이 공공침령 등 부정부패행위를 저질러 국제적인 망신을 특특히 당한 사건도 남조선정계와 행정관료들의 썩은 내막을 잘 파헤쳐보여주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언론들과 각개는 외교통상부를 가리켜 《외도부》, 《비리백화

부패한 권력이 낳은 민성적인 병폐

단편 죄의식의 발로

《노란자위》에 들어갈수 있다는것을 하나의 일반상식으로 알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단체가 밝힌데 의하더라도 전체 공무원들중에서 10명당 3명은 당국자의 연줄로 인한 《악하산인사》로 자리를 타고 앉은 인물들이라고 한다.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의 자리에 앉았으니 일을 제대로 할리 없고 몰아다지며 제배 불리는데만 신경을 쓰는것이다.

현 《정권》이 들어서 《국세청부정부패사건》, 《외교통상부 장관의 자녀투

부패한 권력이 낳은 민성적인 병폐

부패한 권력이 낳은 민성적인 병폐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남조선에서 함선침몰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반공화국모략대결소동이 악랄하게 벌어지고있다.

《해항군인회》를 비롯한 국우보수단체들이 떨쳐나서 《추모식》이니, 전쟁장비 《기증식》이니 하는 광대구를 펼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군부호전세력이 북의 교앞에 있는 백령도에서 전투배치, 상륙기습 및 포사격훈련 등질은 화약배를 퍼우려고 분주랑을 피워대고있다.

한편 남조선정부는 학생들과 교원들의 《안보의식》을 높인다고 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하고 군부대시설까지 개방하여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대결소동에 통일부도 나서서 《실질적인 대화가 진행되기 위해서 북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무조건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떠들어댔다.

남조선에서 미국과의 대규모 《독수리》 합동전쟁연습이 최정정을 치닫고있는 속에서 함선침몰과 관련한 대결감빠니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있는것은 대결세력들의 우위하고 계획적인 하나하나의 모략소동이고 대결소동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함선침몰사건이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정세를 최악으로 몰아가고 반공화국압살목적에 기어이 실현하기 위하여 조작해낸 특대형모략극이고 회세의 동족대

결소동이라는것은 지난 1년간 세상에 날날이 폭로되어 더 재론할 여지도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남조선의 보수당국이 함선침몰사건을 떠들며 북남대결을 더욱 악랄히 고취하는 조건에서 그 모략성과 범죄적인 책동을 다시 까밝히지 않을수 없다.

알려진것처럼 지난해 3월 26일 조선서해에서는 북침전쟁연습에 돌아치던 《천안》 호가 원인모르게 침몰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남조선당국은 처음에는 북이 이와 관련이 없는것으로 이야기했다가 짐

것은 당연하다. 저들이 쓴 포탄의 화약을 북의 어귀에서 나온것이라고 생트집을 걸었으니 항간의 비난과 조소만을 받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당시 남조선의 해당전문가들도 《조사단발표대로 바다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면 갑판위에 있는 연돌에서는 어떻게 화약흔적이 나올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화약성분이 《증거물》이라는 당국의 주장을 단호히 일축하였다.

남조선당국이 《결정적증거물》로 제기했던 《1번》이라는 글자도 황당한 조작품이라는것은 이미 드러날대로 드러난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남조선의 전문가들조차 어찌추진부에 띄어진 글자가 거의 한달동안이나 바다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되어 회미해진 모습에 전혀 없이 뚜렷한가 고 의문을 표시하였다. 한 《조사단》성원은 어찌추진부가 수십 일동안 바다물속에 있었데도 그런 곳에서는 녹이 잉크우로 올라와 있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글씨가 너무 또렷한것으로 보아 《1번》이라는 글은 누가 얼마전에도 고의적으로 쓴것 같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다른 《증거물》들이라는것도 《북의 어뢰공격실》을 하나도 립증하지 못하였으며 억측과 가

정, 조작에 의한것이라는것이 드러났다.

당시 남조선출판보도물들이 《모두 간접적증거일뿐》이며 이런 부실한 《최종보고서》를 누구도 믿지 않을것이라고 지적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조사결과》와 《물증》이라는것이 얼마나 황당한 꾀비이고 날조품인가 하는것은 그때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도 남조선주민들의 70%이상 이 그것을 믿지 않았고있으며 갖가지 의혹을 표시하고있는데서도 잘 나타나고있다.

모략의 장본인들은 자기가 지은 죄로 하여 그 진상이 밝혀지

동족대결의 도수를 더욱 높여 국도의 통치위기에 서 벗어나고 반공화국압살의 더러운 목적을 달성해보자는것이다.

함선침몰사건을 날조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벌려온 광란적인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소동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황당무계한 《조사결과》라는것을 세상에 발표해놓고 남조선당국이 취한 행동은 《단호한 대응》이라는 간판밑에 겨우 숨이 붙어있는 북남관계를 완전파산으로 몰아가는 구도의 대결소동이였다.

이른바 《5.24조치》라는것이

리성이 있다면 여기에서 교훈을 찾고 모략대결소동을 중지할 대신 남측의 대결광신자들은 저들이 하내비쳐된 썩기는 미국을 《동맹》으로 취주며 동족에 대한 제재와 압살을 구걸하였다. 그 대가로 《전시작전통제전전환》의 열기, 《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 등 미국의 침략적이며 랍탈적인 요구들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남조선인민들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냈다.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보복》이니, 《응징》이니 떠들며 지난해의 1년으로 충포성이 그칠새 없는 1년으로 만든것도 용서 못할

란을 북의 령해에 퍼부음으로써 포탄과 포탄이 오가는 조선전쟁 이후 최대의 군사적충돌사건을 일으켰다.

올해에 들어서도 남조선당국은 고질적인 동족대결과 전쟁광기를 떠러버리지 못하고 공화국의 폭풍은 대외와 협상제의를 거부하며 대결을 지속하다 못해 2월달부터는 대규모의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음으로써 조선반도의 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국면으로 몰아가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1년전 세상을 들썩하게 한 《천안》호사건이 다름아닌 동족압살을 위해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외세와 야합하여 꾸며낸 비렬한 모략극, 동족대결의 극치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 사건을 기화로 지난 1년간 남조선에서 벌어진 류례없이 악랄한 동족대결소동과 북침전쟁소동들은 《천안》호사건의 모략성을 립증하는 생동하고 론박할수 없는 《물증》으로 되고 있다.

력사의 진실은 가리울수 없으며 모략과 대결의 광신자들은 웅대한 벌을 받기마련이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 함선침몰사건을 계속 떠들며떠며 동족대결소동을 악랄하게 벌릴수록 북남관계를 파괴하는 저들의 범죄적인 정체가 더욱 날날이 드러나게 될것이다.

주광일

함선침몰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차 《북개입설》을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사건해명은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 《북의 범행》을 짜맞추어 립증하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렇게 하여 《북이 어뢰공격》을 했다는 이른바 《조사결과》라는것을 발표하였는데 그 《물증》이라는것이 가짜였다.

우선 배의 연돌(연통)과 절단면, 해저 등에서 검출한 화약성분이 《어뢰에 사용되며 북에서 쓰는 화약》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러무니없는 주장이었다.

함선이 침몰한 해역은 남조선 해병대의 포사격구역으로서 바다 밑바닥에서 화약흔적이 발견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법이다.

《북이 배를 침몰》시켰다고 그처럼 배를 파괴해 둘이러면 남조선당국이 정작 북에서 검열단을 파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자 바빠달아 이구실, 저구실 하며 끝내 사건현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도로 가로막은것은 함선침몰사건이 저들이 조작한 모략극이라는것을 스스로 드러낸것이다.

그들이 이처럼 어마어마한 모략사건을 조작해낸 의도는 다른 데 있지 않다. 그것은 집권 첫날부터 몇해동안 동족대결만을 일삼으며 대화와 협력, 래왕을 차단하고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저들의 죄악을 가리우고

표되고 《북측선박의 남쪽해역통과금지》, 《남북교역과 교류중단》, 《자유원발동》 등 대결과 북남관계폐쇄조치들이 려이 취해졌다.

한편으로 모략의 장본인들은 《천안》호사건을 유엔에 끌고가 국제무대에서까지 동족을 모해하고 압박제재하기 위해 분주랑을 피워댔다. 그러나 남조선인민들조차 믿지 못하겠고 하는 영타리 《조사결과》를 외부세계의 눈이 믿겠는가. 유엔안보리회의에서의 《천안》호론은 호지부러 몇해동안 동족대결만을 일삼으며 대화와 협력, 래왕을 차단하고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저들의 죄악을 가리우고

표되고 《북측선박의 남쪽해역통과금지》, 《남북교역과 교류중단》, 《자유원발동》 등 대결과 북남관계폐쇄조치들이 려이 취해졌다.

한편으로 모략의 장본인들은 《천안》호사건을 유엔에 끌고가 국제무대에서까지 동족을 모해하고 압박제재하기 위해 분주랑을 피워댔다. 그러나 남조선인민들조차 믿지 못하겠고 하는 영타리 《조사결과》를 외부세계의 눈이 믿겠는가. 유엔안보리회의에서의 《천안》호론은 호지부러 몇해동안 동족대결만을 일삼으며 대화와 협력, 래왕을 차단하고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저들의 죄악을 가리우고

표되고 《북측선박의 남쪽해역통과금지》, 《남북교역과 교류중단》, 《자유원발동》 등 대결과 북남관계폐쇄조치들이 려이 취해졌다.

한편으로 모략의 장본인들은 《천안》호사건을 유엔에 끌고가 국제무대에서까지 동족을 모해하고 압박제재하기 위해 분주랑을 피워댔다. 그러나 남조선인민들조차 믿지 못하겠고 하는 영타리 《조사결과》를 외부세계의 눈이 믿겠는가. 유엔안보리회의에서의 《천안》호론은 호지부러 몇해동안 동족대결만을 일삼으며 대화와 협력, 래왕을 차단하고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저들의 죄악을 가리우고

표되고 《북측선박의 남쪽해역통과금지》, 《남북교역과 교류중단》, 《자유원발동》 등 대결과 북남관계폐쇄조치들이 려이 취해졌다.

한편으로 모략의 장본인들은 《천안》호사건을 유엔에 끌고가 국제무대에서까지 동족을 모해하고 압박제재하기 위해 분주랑을 피워댔다. 그러나 남조선인민들조차 믿지 못하겠고 하는 영타리 《조사결과》를 외부세계의 눈이 믿겠는가. 유엔안보리회의에서의 《천안》호론은 호지부러 몇해동안 동족대결만을 일삼으며 대화와 협력, 래왕을 차단하고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저들의 죄악을 가리우고

표되고 《북측선박의 남쪽해역통과금지》, 《남북교역과 교류중단》, 《자유원발동》 등 대결과 북남관계폐쇄조치들이 려이 취해졌다.

한편으로 모략의 장본인들은 《천안》호사건을 유엔에 끌고가 국제무대에서까지 동족을 모해하고 압박제재하기 위해 분주랑을 피워댔다. 그러나 남조선인민들조차 믿지 못하겠고 하는 영타리 《조사결과》를 외부세계의 눈이 믿겠는가. 유엔안보리회의에서의 《천안》호론은 호지부러 몇해동안 동족대결만을 일삼으며 대화와 협력, 래왕을 차단하고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저들의 죄악을 가리우고

변이 나는 내 나라

우주에 뻗은 국력



공화국에서 최첨단기술의 종합체인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가 우주공간으로 날아오른 때로부터 2년이 되어온다.

그날은 2009년 4월 5일, 또 하나의 역사적사건이 반만년민족사에 기록된 뜻깊은 날이었다.

그보다 10여년전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를 단번에 쏘아올린 공화국이 두번째 위성발사에 성공하였다는 소식은 온 겨레와 전세계를 격동케 하였다. 세계적으로 보면 한번의 실패도 없이 위성발사에 두번 다 단번에 성공한 실례가 없는줄로 안다. 위성발사초대국이 라고 하는 미국의 첫 인공지구위성 《벵가드》나 일본의 《라다》, 유럽우주기구의 《에스로》 등은 모두 처음부터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였다.

《광명성2》호의 단번발사, 단번궤도진입의 성공으로 공화국은 세계적인 위성제작 및 발사국, 위성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다.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와 운반로켓 《은하-2》호가 철저히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되었다는 것 또한 거대한 크나큰 민족적 긍지를 안겨주었다.

오늘 세계에는 위성은 물론 발사체까지 자체로 설계 제작하는 나라는 많지 못하다. 위성초대국, 상업위성국, 위성개발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위성제작과 발사에 필요한 주요부품들은 대체로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다른 나라에 전적으로 의탁하여 위성을 제작하거나 통채로 사다가 자기 나라 이름을 붙이고 남의 발사체를 빌려 쏘올리면서 위성보유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광명성2》호와 《은하-2》호는 설계로부터 제작, 조립, 그 발사장과 관측설비에 이르는 모든 것이 100% 국산화된 선진국 조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다. 우주공간에는 수많은 위성이 떠돌고있지만 100% 제 힘으로 개발되어 단번발사에

성공한 위성은 오직 공화국의 위성뿐일 것이다.

20세기 초엽 다른 나라들이 기차나 비행기, 함선을 제조하여 세계를 좀다하게 활보할 때 호미와 낫이나 버리던 《약소국》이 조선이었다. 그러나 한세기가 흐른 21세기 초엽에는 자기의 국력을 우주에까지 뻗은 세계의 몇 안되는 강국으로 우뚝 솟아올랐으니 이 얼마나 긍지스러운 일인가.

하기에 남조선과 해외동포들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의 발사성공 소식을 듣고 《2009년 4월 5일, 우리 민족이 우주로 정복한 역사적인 날!》, 《우리 민족 최초로 일구어낸 특기할 업적》이라고 격찬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의 성과적발사는 공화국의 국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 강성대국건설에서 승리의 포성을 울린 역사적사건으로 된다.

인공지구위성의 제작 및 발사는 해당 나라의 막강한 국력과 경제력, 과학기술수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거어 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고 세계앞에 확언하였다. 위성발사를 계기로 공화국은 강성대국건설이 결코 공상이나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뚜렷이 확증한 것이다.

세상사람들이 꿈으로나 그려보는 강성대국,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오르고 모든 것이 흥하는 무릉도원의 대문을 두드리는 승리의 첫 포성을 울렸는데 《광명성1》호와 《광명성2》호발사 성공이 가지는 사변적의의가 있다.

그것은 변을 알리는 승리의 포성이었다. 그때로부터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경이적인 변들이 여기저기서 다계단으로 일어났다.

변이 나는 내 조국의 장쾌한 서막을 연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와 《광명성2》호의 성과적발사!

이 커다란 민족사적사건은 온 겨레는 길이길이 후손만대에 전해갈 것이다.

손승숙

실리있는 남새연구 및 생산기치

평양시내를 벗어나 얼마쯤 가느라면 준비하게 늘어진 온실들을 볼 수 있다. 흰 지붕을 씌운 멋쟁이 건물들이 바로 정보화시대의 요구에 맞게 첨단연구

은을 내는 통합조종체계

마치 꽃화분을 가꾸는 것 같다. 드넓은 면적의 수경은 실안에 들어서면 누구나 눈앞의 화려한 광경에 절로 감탄이 흘러나온다. 남새재배라고 하면 흔히 토양에 종자를 심고 김을 매며 가꾸는 것으로 인식되어온 전통적인 방식을 이곳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대신 토양위에 매달려 있는 기질(인공토양)주머니에서 오이와 도마도, 가지 등을 비롯한 각종 남새들이 싱싱하게 자라고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질주머니안의 매 포기마다 가느라란 선을 통하여 영양액이 공급된다. 수경이라는 말 자체가 물(영양액)로 남새를 경작한다는 뜻이다. 그 모습을 보느라면 남새재배가 아니라 화분에서

였다. 보기도 해도 먹음직스러운 도마도와 시원한 팽국생각이 절로 나는 탕스러운 오이, 인형 및 반원형가지들과 평장히 큰 봄부추, 사자고추, 붉은통가두배추와 푸른꽃가두배추, 향긋하면서도 특이한 냄새를 풍기는 진채, 잎하나가 배추일만 한 통부추, 흰자, 향미나리 등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각종 특이한 남새품종들은 다 평양남새과학연구소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육종한 우수한 새 품종들이다.

《우리는 저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가까운 기간에 수경온실을 비롯한 현대적인 남새온실들을 더 건설하고 유기질비료를 적극 리용하여 정보량 남새생산량을 훨씬 늘이며 새로운 병진성 품종들을 더 많이 육종해 내려고 합니다.》

최근 평양남새과학연구소에서는 인민들의 식생활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각종 남새의 생산성과 영양가를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활발히 벌여 20여개의 작물에 50여개의 품종을 새로 육종해내는 성과를 이룩하

는 것으로 하여 식생활의 발전과 더불어 그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수십종의 새 품종들도 육종하여

남새는 사람들의 식생활에서 절반몫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종합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는 남새는 사람들의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식품일뿐 아니라 각종 병을 예방하고 장수를 도모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



본사기자 흥범식



누구나 누려가는 정휴양혜택

인간은 노동에서 소모된 정신적 및 육체적 힘을 휴식을 통해 회복할 권리를 가진다. 오늘 노동자, 농민, 사무원을 비롯한 공화국의 근로자들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에 서 고마운 사회적혜택을 마음껏 향유하고있다. 공화국인민들이 누리는 혜택 가운데는 해마다 30여만명의 각계층 근로자들이 훌륭한 정휴양소에서 즐기는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사회적사책도 들어 있다.

공화국에서 실시되고있는 이 인민적사책은 비단 어제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새 조국건설시기부터 공화국에서는 사회보험법을 공포하여 근로자들이 국가부담에 의한 휴양을 하도록 하였다.

가렬치 절한 조국태방전쟁시기에도 공장, 탄광, 광산에서는 노동자, 사무원들의 야간정장이, 전선에서는 인민군인들의 화선

휴양이 중단없이 진행되었다. 전후 사회주의건설시기에도 인민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그에 맞게 휴양사업을 계획적으로 잘 조직하여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인민적인 휴양제도의 혜택이 고르롭게 미치도록 하였다. 농업근로자들도 국가부담으로 휴양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공화국의 인민적인 사책 아래 근로자들을 위한 정휴양사업은 끊임없이 발전하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어려운 시기에도 정양소, 휴양소들의 문은 근로자들을 기다려 언제나 열려져 있었으며 급식조건을 비롯한 모든 것이 충실히 갖추어져 있었다.

절세위인들의 이민위천의 뜻에 떠받들려 오늘 공화국 각지의 명산, 명승지와 온천, 약수, 동서해의 배사장들마다에는 국가의 비용으로 운영되는 정휴양소들이 꾸려져있으며 정휴양제도 실시의 첫 시기 7개밖에 없던 정휴양소가 오늘은 800여개로 늘어났다.

묘향산, 은포, 석담구곡, 석왕사, 구월산휴양소를 비롯한 휴양소들에서는 근로자들이 무료로 온천욕과 등산 등을 하면서 즐거운 휴식의 나날을 보내고있다. 공장, 기업소정양소들에서도 노동생활에서 혁신적성과를 거둔 근로자들이 국가의 혜택 속에 문화적인 생활환경에서 행복의 노래를 마음껏 부르 고있으며 겨울이 되면 각지의 농업휴양소들에 농업근로자들의 기쁨이 한껏 차넘치고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지만 근로자들이 문화정서적인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모든것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것을 법으로 제정하던 그런 나라는 공화국밖에 없다.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에 서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누려가는 공화국인민들은 이 땅위에 부강번영하는 강성대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울 애국의 일념으로 가슴불태우고 있다.

본사기자 김철민



—석왕사휴양소에서—

내 운명의 어버이 (2)

송고한 인간애에 매혹되어

내가 살고있는 연길시 중심에는 《진달래》라는 이름을 단 광장이 있다. 추위와 찬서리를 이겨내며 따뜻한 봄정기를 남기지 않는 열정의 진달래, 아름다운 미래와 지향의 상징인 진달래!

항일의 너 성 영 용 김정숙녀사께서 제일 사랑하신 꽃이라는것을 조국의 출판물을 통해 알게 된 때부터 나는 류다른 심정을 안고 매없이 이곳을 자주 찾곤 한다.

그처럼 뜨거우신분 세상에 또 계시라
그처럼 고결하신분 세상에 또 계시라
만나면 순간에 온넋이 끓여
심장을 함치고 운명을 함치는
아 그이는 김정일동지
...
눈곱을 적시며 절절하게 부르는 노래가 끝나자 장내에는 열광적인 박수갈채가 일었다. 재청을 요구하는 사람, 꽃다발을 안겨주는 사람들도 많았다.

노래의 구절구절에 매혹된 나는 노래를 부른 사람을 만나보았다. 알고보니 놀라게도 그는 남조선에서 온 판광객이었다. 어떻게 이국땅

에 와서까지 김정일장군님을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가고 묻는 나에게 그는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하는 하늘보다 넓고 해빛보다 따스로운 사랑으로 온 겨레를 뜨겁게 안아주셨을 것이다. 인정이 매마른 오늘의 세상에서 고급의 력사가 알지 못하는 인간애를 지니신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을 모신 것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행운이며 자랑이다.》고 격정의 넘쳐 말하는 것이었다. 그의 말은 나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예로부터 인간성과 인정이 풍부한 사람을 참다운 인간으로 일러왔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력사에 이름을 남긴 위인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 모든 위인들의 인정이 다 합친다 해도 따를 수 없는 것이 위대한 인간인 김정일장군님께서 지니신 특출한 인간애이다.

조국의 라선지구에 기업을 차리고 운영해오는 나날 나는 이인위천의 송고한 리념을 지니시고 인민들에게 한없이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베풀어주시는 그의 인간애에 매혹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언제인가 조국의 북변에 자리잡은 한 광산을 찾았던 나는 그곳에서 눈물없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광산에는 건설한지 오래된 흑연전조장이 있었다. 그 전

조장은 설비가 낡아서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불편을 느끼고있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해당부분 일꾼들을 부르셔서 우리 인민은 나라사정이 어려웠던 시기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하면서 당을 받들어온 훌륭한 인민이라고 하시면서 아무리 생산이 긴장해도 만사를 제쳐놓고 흑연전조장을 개조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었다.

인민을 위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전설과도 같은 사랑의 이야기는 비단 이뿐이 아니다. 공장에 가면 장군님께서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고 하시며 막대한 자금을 들여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하도록 하신 감동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협동농을 찾으면 그이의 현명한 령도아래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선경으로 회한하게 전변된 모습이 호모하게 안겨온다.

만복의 대문이 활짝 열리고있는 강성대국도 조국인민들에게 이 세상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생활을 하루빨리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애민의 송고한 헌신이 안아온 인민사랑의 결정체라고 생각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간애는 사상과 리념, 제도와 신의 양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겨레를 한몸에 안아 보살피려는 헌없이 은혜로운 사랑의 품이다.

수십년전 남조선에서 대홍

수가 닳을 때 행복에 웃는 자식보다 불행에 우는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남녘동포들에게 수많은 구호물자를 보내주도록 뜨거운 동포애의 정을 부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이다.

몇해전 조국을 방문하였을 때 해외동포사업을 맡아보았던 일꾼에게서 들은 이야기이다. 조국이 어려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던 나날 조국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온 언길시에 사는 김연자라는 동포가 있었는데 그의 생사여부를 모르고있다가 최근에야 찾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래동안 소식이 없던 김연자동포를 찾고보니 그의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 운영하던 기업은 파산된 데다가 심한 중병으로 앓아 누워 치료받을 돈조차 변변히 없는 매우 어려운 상태에 처해있었다.

하지만 조국은 그를 잊지 않고있었다. 조국에서는 그를 평양에 데려다가 치료를 해주고 자금도 대주어 파산된 그의 기업을 살려주었다. 기업을 망친데다가 몸품 병까지 만나 모든것을 포기하고 생사기로서 헤매던 그는 조국의 따뜻한 품속에서 두번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겨레를 위해 바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열화와 같은 인간애, 동포애가 낳은 사랑의 이야기이다.

세상에는 유명한 《천하루방의 이야기》가 있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과 겨레를 위해 남긴 사랑의 일화들을 하루밤에 한 가지씩 일화로 읊기자면 천하루방이 아니라 만하루방을 가지고도 모자랄 것이다.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데서 가장 큰 보람과 행복을 찾으시는 위대한 령도자께 매혹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었는가.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자기 령도자만을 굳게 믿고 받드는 조국인민들의 불굴의 정신력, 세상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불굴의 일심단결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특출한 위인상이 낳은 매혹과 호모의 분출이라고 생각 한다.

진정 지역의 하늘가림에서도 조선민족의 긍지를 빛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엄과 영예를 안겨주시고 한없이 넓은 동포애로 따듯이 보살피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은 우리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다.

지금 공화국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최후 공격전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 있다.

종이장도 맞들면 가법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해외동포들에게 있어서 지금이야말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받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더 잘 받들어 모시는데 끝없이 휘황찬란한 통일강성대국의 밝은 미래가 있다. 글을 마치면서 해외동포기업가로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위원에 특색있는 기여를 해나갔는 것을 결의다짐해 본다.

리도문(중국 길림성 룡정시 철옥무역공사) (끝)



— 권 광 정 앞 에 서 —

리조시경 평안도 성천고을에 부용이라는 기생이 있었다. 얼굴이 아름답고 행동이 고상한것은 물론이고 시 또한 잘 짓기로 유명하였다. 한번은 《추풍성별곡》을 지어 이름이 높았던 로호걸이라는 양반이 부용의 아름다움을 탐내며 그를 찾아갔다. 그는 부용을 술좌석에 초청한 후 자기의 마음을 담아 붓을 들어 이런 시구를 지었다.

세인개능도 (은하수는 하늘의 물이니 세상사람 그 어찌 건늘수 있으리오)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 일이니 생각지 말라는 뜻이었다. 로호걸은 뜻을 이루지 못한채 돌아가지 않을수 없었다. 그후 서울의 한 양반이 평안도에 내려갔던 길에 유명

북촌인구 대페페 그의 생각은 (북촌마을사람들 돌아오는데 동네 개가 짖어대누나) 하는 내용을 쓰자는 것이었으나 《개견》자의 웃점을 우정 찍지 않고 《큰 대》자로 만들어놓았다. 서울양반은 자기가 《곰옹》자를 잘못 쓴것은 생각지 않고 부용을 조롱했다. 《부용아, 소문을 듣기에는 네가 재주있고 글 잘한다고 하였는데 어찌 일

평생일편심 육도는하수 (평생을 한마음으로 은하수를 건느려오)

야담 시로 막아치운 조롱

한생을 두고 견우가 직녀를 만나보고싶어하듯이 오작교를 놓아 은하수를 건너가서 부용을 만나보고싶다는 말이였다. 평시에 량반문인들을 아니 꺾게 보아오던 부용은 감언리설과 같은 이 시구를 보고 화가 났다. 천한 기생이라고 업수이 보면서 갖은 시중을 다 듣게 하는 봉건관료배들에 대한 원한이 깊은 부용으로서 이런 제의를 받아들일 리 만무하였다. 부용은 천천히 붓을 들고 이런 대구를 지었다.

남산설적 능주주 그의 생각은 사실 (눈이 쌓인 남산에 곰이 달리네)라는 내용을 쓰자는 것이였다. 그런데 부용에게 급히 대답하려고 황급히 서두르다보니 《곰옹》자의 밀변을 빼놓고 잘못 썼으므로 《능향능》자가 되어버린것을 몰랐다. 이것을 제격 알아본 부용은 즉석에서 이런 대구를 지었다.

대개해금 음식속 소첩학서 견일이 (대개입 곰에게 네발 주시는 은혜 베풀면 소첩이 개에게 귀 한개 주는것 어찌 아까우리오) 너무도 기발한 시구에 서울양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짹짹 다시며 돌아가고 말았다. 본사기자

은하천상수

건강상식 피부노화를 촉진하는 나쁜 습관

피부미용학전문가들은 피부노화를 촉진하는 《전통적인》 나쁜 습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었다. — 두눈을 가늘게 찌푸리는 습관 생활과정에 흔히 사람들은 은 사물을 더 잘 보기 위해

두눈을 가늘게 찌푸리곤 한 때 해수욕장에서 색안경을 끼지 않는데도 그 원인이 있다. — 무엇인가를 씹거나 까먹는 습관도 코밑에서부터 웃입술에 이르는 인중의 피부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본사기자

일 때 해수욕장에서 색안경을 끼지 않는데도 그 원인이 있다. — 무엇인가를 씹거나 까먹는 습관도 코밑에서부터 웃입술에 이르는 인중의 피부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본사기자

단편소설 녀 교수의 증언 (1)

글 김호성, 그림 김철민

1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 (FAO) 본부가 자리잡은 로마에서 비행기에 몸을 실은 김일순은 푸른 하늘을 날고 있었다. 흰구름아래로 누런색을 띤 땅과 수림, 호수들이 보인다. 승객들은 자기들의 시야가 엄청나게 넓어지는데서 오는 환성을 터뜨리며 들뜬 기분으로 유쾌한 이야기를 끝없이 나누지만 김일순은 기쁨한 얼굴, 약간 쳐들린듯 한 코마루와 움직일줄 모르는 눈동자의 초점은 도

고함과 함께 찬 기운을 풍기고 가볍게 다물린 고운 입매조차 얼얼전체가 단지는 그늘로 하여 이상야릇한 절제감을 느끼게 한다. 미간의 잔주름만이 이따금 넓어졌다 좁아지곤 하면서 심리의 숨결을 내비친다. 6년간 FAO에서 일하다 돌아오는 김일순이다. 생물세포공학계 권위있는 학자인 그는 실적을 통하여 과학적으로 검증된것이외에 그 무엇도 믿지 않는 여자였다. 유전자의 배열로 이루어진 세포와 세포의 결합으로 존재하는 생명체가 자연을 이루고 사회를 형성했다고 간주하는 다윈주의의 신봉자, 종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간의 마찰과 분쟁까지도 갑작스런 현상을 분석평가하는 생물공학주의자이다.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면 오직 과학뿐

이라고 단정하는 여기에 온갖 사회현상의 본질을 옮겨 파악하지 못하는 그의 본질적약점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었지만 자신을 인식하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부인, 위스키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곁에 앉은 은발머리사나이가 스코틀랜드방언이 섞인 영어로 친절하게 묻자 김일순은 고맙다고 고개만 끄덕여보일뿐 눈길조차 돌리지 않았다. 동양녀의 뺨담에 어깨를 으쓱한 사나이가 위스키를 한모금 마시고나서 그냥 지분거렸다. 《세상남자들은 누구나 동방녀인을 좋아합니다. 그... 사실은 일본녀성을 말입니다.》 《어서 가세요, 그 섬나라 여자들한테로. 부디 돌아갈 비행기표값을 남겨두고 말입니다.》

생선맛을 계절별로 평가한 우리나라 속담들 (2)

— 《가을에 전어를 구우면 집 나간 머느리가 돌아온다.》 전어맛의 절정은 11월인데 이 시기에 잡히는 전어는 살이 통통하고 비린내가 적으며 뼈가 무르고 맛이 고소하다. 가을전어맛의 비결은 풍부한 지방에 있다. 전어의 지방함량은 계절에 따라 차이나는데 가을에는 봄의 3배나 된다. 특히 가을 전어는 영양가가 높아 《가을전어의 대가리엔 개가 서있다》이라는 속담도 전해지고 있다. — 《가을배와 곶두어는 머느리에게 주지 않는다.》 가을곶두어의 절묘한 맛에 대하여 묘사하고있다. 곶두어는 가을이 되면 살에 지방이 많아지면서 그 맛이 최고로 좋아진다. 등푸른생선인 곶두어는 뇌기능을 높여주고 치매,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치료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 — 《공치는 서리가 내려야 제맛》 공치맛의 절정기는 서리가 내리는 10~11월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공치는 계절별로 지방함량이 서로 다른데 여름에는 공치 100g당 지방함량이 10g에 불과하지만 11월에는 20g까지 올라간다. 공치는 혈관치료에도 매우 좋다. — 《10월(음력)갈치는 돼지 세겜살보다 낫고 은빛비늘은 황소값보다 높다.》 늦가을부터 겨울까지의 갈치는 여름갈치에 비해 기름이 번지르르하고 살이 연하며 맛이 고소한것이 특징이다. 본사기자

공화국 각지 사찰들에서 《열반절기념 조국통일기원법회》 진행

19일 10시 공화국의 각지 사찰들에서는 《열반절기념 조국통일기원법회》가 일제히 진행되었다. 법회들에는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 각 도, 시, 군위원회 교직자들, 해당 사찰의 승려, 신도들이 참가하였다. 법회들에서는 폐식에 이어 연설들이 있었으며 조국통일기원발원문이 낭독되었다. 연설자들은 지금 큰 나라 전체 인민이 새해 공동사실을 받아안고 인민생활대교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총공격전에 힘차게 떨쳐나서고 있는 때에 열반절을 기념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해내의 전체 불교도들이 《복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불심화합하여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하고 전쟁위험을 가시며 대화와 협력을 적극 추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우승후보팀이 따로 없다》

꽃샘추위속에서 지난 2월 20일부터 열기를 띠고 진행된 국내최상급팀(남, 녀)들 사이의 2011년 1차축구연맹전이 18일 막을 내렸다. 이번 1차연맹전에 이어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4월)와 보천보체육경기대회(6월), 공화국신수권대회(10월)를 비롯하여 6차례 걸쳐 국내최상급팀사이의 축구연맹전이 진행되게 된다. 이번 1차연맹전은 4.25, 만경보, 소백수, 리명수, 압록강, 평양, 기관차, 경공업체육단을 비롯한 남자 11개팀과 국가종합청소년축구팀이 움써버로 참가하는 여자 11개팀이 참가하여 대외우승컵을 놓고 승부를 다했다. 특히 지난해 국내1부팀들사이의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통남산남자축구팀, 봉화산녀축구팀들이 이번 1차연맹전에 처음 출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다. 《우승후보팀이 따로 없다.》 시중 치열한 공방전을 이룬 1차연맹전 전과정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많은 축구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평하였다. 어느 경기대회에서나 우승후보팀을 미리 선정하기마련이다. 이번 1차연맹전을 앞두고 축구전문가들은 지난 시기의 경기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4.25남자축구팀과 봉화산녀축구팀을 우승후보팀으로 꼽았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경기결과를 두고보아야 한다는 사람들의 주장도 묵묵치 않았다. 그 근거로 여러차례의 축구연맹전을 통해 전반



어원해설 새 별

마치도 우주공간에 없던것이 새로 생겨나것과 같은 표상을 주기때문에 이런 별들을 《새별》을 나타내는 말이 《새》를 붙여 《새별》이라 부르게 되었다. 새별이 갑자기 밝아지는

원인은 별이 폭발되는 순간에 굉장한 량의 기체가 해당 별주위의 넓은 공간영역으로 흩날려나가기때문이라고 한다. 오늘까지 우리 은하계에만 하여도 약 500여개의 새별들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우리 선조들은 새별을 《순님별》이라고도 하였으며 한자말로로는 《순님객》자, 《별성》자를 써서 《객성》이라고도 하였다. 이 말들은 순님처럼 이따금 새롭게 나타나는 별이라는 데서 붙인 말이었다. 본사기자

그해 가을 아버지는 탄광 일을 하다가 굴이 무너져 술을 더이상 마시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어느 하루 그 아버지가 해서 울지 않는 날 없는 집이었지만 아버지없는 집은 허전했고 그때문인지 몰라도 어머니마저 병들어 누웠다. 릉종을 앞둔 어느날 어머니는 딸을 머리맡에 앉혔다. 《일순아!》 《엄마!》 《우리 일순아... 엄마가 머리 빗겨줄까?》 침침을 찾았어 어머니는 간신히 일어나 앉았다. 《고운 내 딸아, 엄마 잘 듣지?》 《응.》 《일순아,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아라. ... 아버지 좋은 분이시다.》 그 말이 일순에게는 곧이 들리지 않았지만 어머니말이기에 고개만 끄덕였다. 자식에 대한 사랑을 안고 마지막으로 머리를 빗겨준 어머니는 사후후에 눈물로 산 세상과 리별하였다. ...